지상 법석

자기보다 남을 생각해야 보살"

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피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밝아야 하는데 지혜가 밝으면 그런 묘리가 금방 생긴다고 합니다. 이래서 그야말로 자기가 죽지도 살지도 않은 그런 경계까지 밝혀서 잘 실행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생사를 초월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죽는 것에도 걸리지 않고 사는 것에도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육체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지 육체를 떠난 입장에서는 생사의 구

생사를 초월해야

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입장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죽고 사는 것이 없다하고 그것을 초월하느냐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사람은 육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마음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죽는 것이고 육체가 사는 것이지 마음 자체는 죽으나 살으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산다고 해서 별스럽고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죽는다고 해서 감해지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육체라는 것은 지수화풍 4대로 형성됐다고 합니다. 그것은 인연이 다하면 각각 흩어진다고 하지요. 사람이 죽으면 뼈는 흙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흙으로 간다고 합니다. 또 모든 액체 소변이나 피, 고름은 물에서 왔기 때문에 물로 가고 또 체온은 자연물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또 움직이는 동작은 풍에 속하는데 그것 역시 풍으로 돌아가고 네가지가 각각 돌아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허망하다고 하는 겁니다. 육체라는 것은 여러가지가 섞여 형성되었기에 그것을 부정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육체처럼 깨끗한 것이 없고 육체처럼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몸 밖에는 아무 물건도 없다해서 몸이 제일이라고 위하는 것만 알고 몸이 조금이라도 상할까봐 애를 쓰고 약이란 약은 다 먹고 몸에 도움된다고 하면 무엇이든 다 먹죠. 그러나 육체란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죽게 마련입니다. 이래서 그런 것을 무상하다 합니다. 이면의 자기 마음자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얘기를 예로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께 얘기하고 자합니다.

옛날 등운봉스님이 계셨는데 그 절은 크고 대중도 많았어요. 밥짓는 공양주가 있었는데 솥에다 불을 지피다 잘못해 옷에 불이 붙어 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 생각하기를 내가 공양주를 안했으면 타죽는 일이 없었을텐데 공양주를 해서 타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공양주를 하라고 권한 사람이 등운봉스님이라 그 스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일단 죽으면 염라대왕에게 한번 거친답니다. 염라대왕은 그 사람이 생전에 복짓는 일을 많이 했나 복을 갚하는 일을 많이 했나 살피는 것이죠. 복짓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좋은 곳으로 안내해 사람으로 또 태어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도인으로 태어나게 한다든지 하는 조사나 재관을 염라대왕이 다 합니다. 그래서 죽는 거야 어떻게 죽든 염라대왕 앞에까지 갔는데 염라대왕이 너는 생전에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불에 타 죽은데 대해 기분 나쁘게 여기고 있던 터에 마음 먹은 대로 얘길 했어요. "등운봉스님이 공양주를 억지로 시켜 밥을 짓다 옷에 불이 붙어 죽으니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 스님이 원망스럽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스님을 잡아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 사람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해 등운봉스님을 데리고 오라고 저승사자를 보냈어요. 절에 가면 가람신이 있는데 가람신은 도량전체를 살피는 일을 합니다. 가람신이 저승사자에게 어딜 가느냐고 물었어요. 등운봉스님을 데리러 왔다고 했더니 찾아보라고 하면서 내가 12년을 여기 있었어도 등운봉이란 사람은 본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자들이 찾아보니 아무도 없어 그냥 돌아가서 염라대왕에게 보고하자 타서 죽은 이가 발을 구르면서 거기 가면 있는데 못찾고 왔다고 하더란 거예요. 염라대왕이 그럼 네가 가서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보니 스님이 마당에 있었어요. 가서 붙잡고 염라대왕에게 가자고 했더니 무슨 이유로 나를 오라 하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자신의 불만을 털어놓자 스님은 한마디만 하고 가자고 했어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자기의 성품과 마음자리는 본래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불로도 능히 태우지 못하고 물로도 능히 빠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죽었으면 아무 것도 없을텐데 내게 와서 이러는 거 보면 죽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말에 납득되어 자기가 생각해봐도 죽으면 아무 것도 없을텐데 이 스님을 원망하는 것이 무언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깨닫고 나니까 스님을 원망한 것이 부질없고 거기서 깨닫고 나니까 염라대왕에게 다시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사람이 자기가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만사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은 중생의 몸을 가지고 세상살이도 해야 하고 자녀도

불교 믿는 근본 알아야

키워야 하고 사업도 해야 하고 자기 몸도 가꿔야 하고 좋은 것도 사서 발라야겠고 좋은 옷도 입어야겠고 이것이 중생의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오래사는 것도 아니고 육체에 아무리 치중해봐야 성불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이치를 몰라 자꾸 거기에 치중하고 그 아단치다 인연이 다해 죽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다 소용없는 것이죠. 죽는 마당에서 육체에 치중해봐야 허망하고 허사라는 걸 깊이 깨닫고 나면 알뜰히 먹고 입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히 그런 생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굶지 않을 정도로 먹으면 그만이고 적당히 입으면 그만이지 좋은 것 갖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생활이 가벼워지고 그런 생각이 나기 전에는 부족감이 느껴지지만 그런 것은 사람을 용렬하게 만들고 오래사는 것도 아니니 불교 믿는 분들은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말은 쉽지만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차츰차츰 익히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부처님들이나 보살들은 당신 생각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해 남을 위해 노력하지, 이기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런 이기주의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부처님소리 들을 수도 없고 보살소리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실천하는 것이 당장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하려고 노력해 봐야 합니다. 노력하다 보면 실천에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과 목적을 뚜렷하게 정하고 노력하면 된다는 거지요.

육체만 죽고 사는 것이지 자기 마음은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불교 믿는 보람이 거기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중생이에요. 중생들은 부모에 걸리고 형제간에 걸리고 부자지간에 걸립니다. 다겁다생으로 내려와 부모도 많고 형제도 많고 내외간도 많은데 하필 금세간에 부모와 내외와 자녀들에게 끌려 그 구렁텅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렇게 허둥대는 것을 차원높은 경지에서 보면 그야말로 가소롭고 우습게 생각되지요.

세상을 살아 나가되 차츰차츰 그런데 뜻을 두고 목적을 향해 나가는 것이 불교 믿는 근본 이유라 생각합니다. 그런 경지까지 간 이들은 두루 광명이 어디고 다 비치기 때문에 어두운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사람이 다 자기의 마음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닦아서 빛을 내면 일월보다도 밝아요.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을 사용할 줄 모르면서 해뜨기를 기다리고 달뜨기를 기다리면서 어떤 일을 하고 길을 찾으려 합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본성을 바로 보기 위한 수행을 열심히 해야하는 것입니다.

> *"육체라는 것은 지수화풍 4대로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인연이 다하면 각각 흩어진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뼈는 흙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흙으로 간다고 합니다. 또 모든 액체 소변이나 피, 고름은 물에서 왔기 때문에 물로 가고 또 체온은 자연물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육체가 허망하다고 하는 겁니다."*

육체는 인연 다하면 자연으로 돌아가 마음 닦으면 일월보다 밝게 살수 있어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①

연재를 시작하며…

붓다와 더불어 붓다의 제자들이 어떤 이상을 갖고 있었으며, 그 이상을 실현 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수행하고 생활하였는지는 오늘날 승단의 존재 의미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진리를 추구하며 진실한 삶을 엮어가는 구도자의 길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수 없이 많은 길이 있으며, 누구나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최선의 길이기를 바란다. 특히, 종교와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아집은 더욱 심한 편이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치고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 모두 다 제 몫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1975년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종교지도자대회에서 힌두교 성인의 연두 연설 중에서 우물 안의 개구리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불교의 자타카에 나오는 것인데 매우 비유적 이다. A라는 개구리가 어떤 우물 속에서 태어나 거기에서만 오랫동안 살고 있었다.

어느날 바다에 살던 개구리 B가 육지에 기어올라 왔다가 그 우물에 빠졌다.

A: "너는 어디로 부터 왔지?"

B: "바다에서?"

A: "바다는 얼마나 크나? 이 우물과 같으냐"

B: "바다를 이런 좁은 우물과 어떻게 비교한단 말이냐"

A: "이 우물보다 더 큰 세상이 있을 턱이 없다. 이 거짓말쟁이 녀석, 어서 썩나가지 못해"

우리 불교인들은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우물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 우물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터널을 뚫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서 있는 것이며, 이 작업의 일환으로 먼저 불교와 과학의 터널을 뚫어 보고자 한다.

뉴턴은 "자연탐구상의 기초가 되는 방법론"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제1법칙은 현상을 설명하는 데 충실하고 진실한 원인 외에는 어떤 원인도 자연의 사물에 포함해서는 안되며, 제2법칙은 같은 결과는 동일한 원인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제3법칙은 물체의 성질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실험적 사실에 의해 그 성질이 모든 물체에 있는 것이 증명된다면 그것이 어떤 물체이건 보편적 성질로 보아도 좋다는 것이다. 원인이 다시 여러가지 현상으로 확대되어 보편적 성질로서 확증되어야 함을 말한다. 즉 〈현상〉--〈이론〉--〈검증〉의 방법적 순환을 완성하여 연구방법의 한 모형을 이룬 것이다.

그에 비해 불교에서의 선문답은 이렇게 오고 간다.

스님:달마조사께서 동쪽으로 오신 뜻은 무엇입까?

조주:뜰 앞의 잣나무니라.

스님:잣나무를 물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주:나도 잣나무를 말한 것이 아닐세.

스님:달마조사께서 동쪽으로 오신 뜻은 무엇입니까?

조주:뜰 앞에 잣나무니라.

말과 언어의 논리성을 넘어서 그것이 나타내는 이미지나 개념자체를 파악하고 그 물음에 대한 존재의 본질에 대한 대답을 적절한 현실상황으로 응답하는 방법론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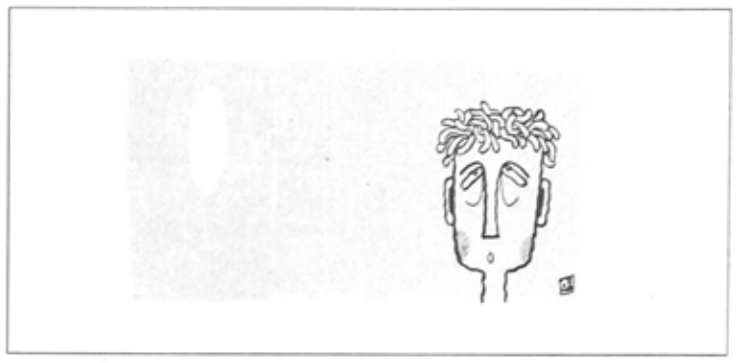
명상과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발산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대한 추구와 생명의 본질에 대한 추구가 동양문화의 밑바닥에 도도히 흐르고 있다.

이러한 문화의 차이는 결국 서양문화는 인간중심적으로 정복과 파괴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동양문화는 우주의 전 생명을 대상으로 조화와 질서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어떤 명제가 도달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은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종합적인 결론에 도달하고 불교적인 방법은 상황을 직관하여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분석적인 물음의 결론에 도달한다.

비유하자면 하나의 이상적인 집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과학적인 방법은 기초는 기초대로, 본체는 본체대로 부분적으로 완성하여 최선의 전체를 이루어가는 방법이며, 불교적인 방법은 관조함으로써 한꺼번에 집전체의 가장 완벽한 모습을 찾는 방법이다.

불교와 과학의 터널은 오늘날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빈곤으로 인한 인간정신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서구문명의 한계 속에서 새로운 인식의 물결을 창출할 수 있는 서막이 되리라고 기대해 본다.



과학은 "부분적" 불교는 "전체적"

김 성 규 교수

약 력

· 1955년 경주서 남
· 영남대서 이학박사
· 현 영남대 외고대학교수
· 저서 : 〈불교적 깨달음 과 과학적 깨달음〉〈우리말 금강경〉〈세간과 출세간의 만남〉등 다수

현대불교신문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인 과 선 원
주지 정덕
신도일동
서울 노원구 월계동 657-2
☎ 993-3706
907-3706

대한불교조계종, 능인정사
성동 불교 포교원
주지 조법경
신도회장 최보시
육바라밀회장 성장엄각
중고등학생회 어린이회
서울 성동구 성수2가 230-8
☎ 462-1335
FAX 462-1339

진 관 사
주지 진관
대중일동
신도일동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1번지
☎ 359-8410

정 각 사
주지 이광우
신도회장 이원각성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277-12
☎ 742-1231

목동 청소년 회관
국장 이광우
부장 이명우
지수증
임직원 일동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6BL1호(4단지)
☎ 646-0181~5

성 국 사
주지 덕봉
대중일동
서울 도봉구 방학2동 산400-16
☎ 902-4455

흥 국 사
주지 황일면
신도일동
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 덕송리 331
☎ (0346)65-8010

용 수 사
주지 조법호
신도회장 이신우
대중일동
인천시 서구 성남1동 175-9
☎ (032)573-6089, 576-8498